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七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米內新內閣成立으로 日米關係는好轉期待

米하와드系紙一齊示唆

【紐育十六日發同盟】米內新內閣의 成立은 日本政界에 明快한 色彩를加하는것이라하여 米國朝野는모다 好感으로써지하고잇는데 全米의 스굽스하와드系新聞은 十六日紙上에서 一齊히 今後 日米關係에關한 社說을揭載、米內內閣의 實現은 日米關係好轉의 可能性을 示唆하는것이라하여 다음가치 論하고잇다

米內海軍大將이 新首相의 印綬를띄인것은 多分히 日米關係에도 重大한 意義를가지는것이다 數個月間의 東京에서의 政治傾向의 轉換은 日本이 日米間에 가로노힌 難關의 解決을 希望하고잇는것을 示唆하는것이다 即東京에서의 日本側希望者은 다시이저버리고 다시 始作하고싶다 米內內閣의 出現은 對米與論을 主張한日本軍部의勢力이 弱하여지고 自由主義的分子가 政府部內에 勢力을가지게된것을 보이는것이다 萬若日本으로서 米國이 在支權益을 包含한 條約義務를尊重하게된다면 日米兩國政府間의 懸案을 平和的으로 解決할것은 自然히알여질것이다 그러나米國이 警戒를緩和하여 條約遵守의 根本主張을變更할것이라고 期待할수는업다 日本이 對米關係의 好轉을 希望하면 日本의 指導勢力이 『힘』의 政策을 버리고 平和的協調政策에 復歸하는것을 立證하는데잇다 約束이나 事實上의 어느것이고 하지안흐면된다

또듀-라이잇久紙華盛頓電은 米內內閣은 日米關係改善의 前途에 多少의 光明을던지는것이라하여 다음가치 論하고잇다

今後十一日 사이에 그루大使와 日本外務當局과의 會談에서 어떠한 諒解的發展이업스면 一月二十六日以後의 日米關係는 單純히 國內法과 一般的 國際法에依하여서만 支配되는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新內閣은 멀지안허 그루大使와의 會談을 再開하게될것이다 前內閣보다도 有能하고 經驗잇는 閣僚로 組織되어잇는 米內內閣의 性格으로 判斷하여 어느程度의進展이 約束될것이다 外交界에서는 新內閣은 政黨方面으로부터 前內閣보다 多數代表가 入閣하고잇고 溫和한 常識的外交政策을 取할것이므로 單純히 日米關係뿐만아니라 日英關係도 改善으로 向하게될것이며 新內閣이 日米間에 廣汎한 政治的協定을 할것이라고 論하고잇다

趙膏藥

蘇芬間戰爭에는 米、中立法不適用

루大統領記者團會見코言明

【華盛頓十六日發同盟】米國의 對芬新借款供與가 中立法과의抵觸이 問題가되어잇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은 十六日新聞記者團과의會見에서 『米國政府는 蘇聯芬蘭兩國에對하여 中立法을 發動할意向이업다』고 言明하엿다 이것은 단하共和黨上院議員이 議會에對하여 蘇聯、芬蘭戰爭에中立法을適用하라는 決議案을提出한데對答한것으로보인다

英上海領事退官 十六日出帆歸國

【上海十六日發同盟】上海駐在英總領事 필립스卿은 爲替任期滿了가되어退官、十六日正午 出帆 프레시덴트후-버號로 米國經由 歸國의길을 떠낫다 氏는在支四十二年、그功에依하여 卿으로叙任된것이다

檢事總長、企畫院總裁 親任、親補式

【東京電話同盟】米內首相은十七日午後一時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木村檢事總長의 法相親任에伴한 後任檢事總長으로서 司法次官 岩村通世氏와企畫院總裁의 後任으로 元物價局次長 竹內可吉氏를 內奏裁可를어 左와如히 親任式을 御擧行하옵셧다

正四位勳二等 岩村通世
補檢事總長
正四位勳三等 竹內可吉
任企畫院總裁

首相秘書官發令

【東京電話同盟】
海軍大佐 正五位勳三等 菊池 六郞
任內閣總理大臣秘書官

英油槽船沈沒

【암스텔담十六日發同盟】英國油槽船(船名不詳約一千噸假量)은十六日 英南東部沿岸航行中 獨潛水艦의 水雷攻擊을바더 火災를이르켜가지고 沈沒하엿다 附近巡邏中의 英哨戒船이 直時 救助에出動하엿스나 까닭모를爆發이 잇서 結局一名의乘組員도 救助치못하엿다

白耳義要請의 佛派兵拒否

【巴里十六日發同盟】和蘭、白耳義兩國에對한 獨軍侵入의 危險이 說하는데 佛國、白耳義兩國參謀本部首腦部는 十六日某地에서 萬一의境遇의 共同措置에對하여 會談을하고 右會見에서 白耳義側은 白耳義領內에 佛軍의駐屯을求하고 軍事的援助를 要請하엿는데 佛國側은 獨軍이白領에 侵入할以前에兵을 보내는것은不可能하다하여 이를拒否하엿는데 佛軍當局은 萬一의境遇에備하여 萬全의 警戒態勢를取하고 잇다고傳한다

白、和兩國境線에 獨八十八個師動員

【巴里十六日發同盟】十六日巴里에達한 情報에依하면 白耳義和蘭國境의獨軍集結兵力은 白耳義國境에 七十個師、和蘭國境에十八個師라하여 全兵力을二軍團에分하여 一軍團으로 和蘭軍의背後를찌를려고 北東部를攻擊하는同時에 他一軍團으로 南西部를攻擊할作戰을取하고잇는 模樣이다

英潛水艦一隻擊沈

【伯林十六日發同盟】獨逸政府發表 英國潛水艦 안단(五四〇噸)과 스타-과슈(六四〇噸)의 兩號는十五日 헤리골란드島의 海岸에서 我軍의 攻擊을바더 破壞되엇다 그리고 兩號乘組員의一部는 我方의손으로 救助되엇다

英海軍省도認定

【倫敦十六日發同盟】英海軍省發表 씨호-스(六四〇噸) 스타-과슈(六四〇噸) 안단(五四〇噸)의 三隻은 過去一週間에 걸처 아무消息도업고 또 그基地에도歸還치 안는것으로보아 或은沈沒한것이 아닌가고생각된다

勃牙利駐在武官發令

【東京電話同盟】勃牙利在勤帝國公使館附武官은 十七日官報로 다음가치 發令되엇다
土耳其在勤 帝國大使館附武官兼 羅馬尼亞國在勤 帝國公使館附武官 海軍大佐 石川信吾
兼補勃牙利國在勤 帝國公使館附武官

豫算案踏襲

【東京電話同盟】議會再開延期에따라 政府는議會慣例에따라 二十二日衆議院本會議에 阿部內閣이編成한 十五年度豫算案을 提出하게될것이다 그리하여 米內內閣은 이豫算을 그대로 踏襲할 方針이므로 이를 그대로 提出의 審議期日을 만히 하기爲하여 一日提出하고 豫算案을撤回하고 고처 休會後 再開議會에 이를 提出할手續을取할方針이라다

畑陸相 全將校에訓示

【東京電話同盟】畑陸相은十六日午後二時省內第一會議室에 省內將校를 모아노코 留任에際하여 訓示를하고 逼迫한 我國內外의 情勢에 對應하여 事變處理完遂에 從來一線不亂한 盤石가튼團結에 依하여 皇軍의威武를 發揮하여 中外에 闡揚할것이라고 述하여다 그리고 이訓示는 全軍에通牒되기로되엇다

卅五萬餘町造林

總督府서五個年計畫樹立

總督府에서는 戰時下重要建設資材인木材의 需要가激增하는데 對備하여 森林資源의確保를期하고 伐採面積增加에伴하는 伐採跡地의造林과 天然生幼齡林에 對한 撫育을擴充實施하기로 決定하고 十五年度부터 十九年度까지 五個年間三十五萬五千町步의 國有林造林事業基本計畫을 樹立하엿다 每年의造林面積은 伐採跡地未立木地及敵生地의 造林計畫에 依한新植一六〇〇〇町步 天然生幼齡林의 撫育計畫에 依한補植(天然生育地)二二〇〇〇町步、天然下種三二〇〇〇町步、成林撫育三〇、〇〇〇町步 合計七一〇〇〇町步이고 이밧게 右造林에伴하는 每年의所要苗木六千五百萬本의生產計畫(苗圃計畫)으로 直營苗圃三百餘町步를 經營하는데京城外十三營林署及全南外三道의國有林關係當局이 萬全을期할려이다

遞信局新規增員 六百五十六名

遞信局十五年度 新規增員豫算은 이번에大藏省承認을 어덧는데 判任官以上은 總員六百五十六名으로 그內譯은 다음갓다 理事(勅任)一名、事務官一名、副事務官五名、技師七名、書記二百七十二名、技手卅名、書記補三百卅三名、航路標識技手二名

遞信新豫算은 六千五百餘萬圓

昭和十五年度 遞信一般會計歲入總額은 三千二百十七萬四千圓으로 十四年度 二千八百四十萬圓에 比하여 三百七十七萬四千圓의增、關係特別會計의歲入總額은 三千二百九十四萬四千圓으로 十四年度의 二千百五萬七千圓에 比하여 一千百八十八萬七千圓의 增으로 歲入合計는 六千五百十一萬八千圓 十四年度의 四千九百四十五萬八千圓에 比較한즉 千五百六十六萬圓의增加가되어잇다 또一般會計歲出總額은 六千八百 六十二萬四千圓으로 十四年度五千五十四萬二千圓에 比하여 一千八百七萬九千圓의增、또關係特別會計歲出總額은 一千八百五十萬四千圓으로 十四年度千百四十萬三千圓에 比하여 七百十萬二千圓의增加로 歲出合計는 八千七百十二萬五千圓에比하여 二千五百十八萬圓의激增이다

順德附近敵殲滅

【石家莊十六日發同盟】武田部隊는 十一日順德東方十三킬로 附近에서 凡八十의敵을 急襲하여 이를殲滅、敵遺棄死體十六、捕虜四十四、鹵獲品多數

公余林軍殲滅戰

敵四分五裂로潰走

【石家莊十六日發同盟】元氏西方東龍城附近에 蟠居하여 石門(石家莊西南方)地區에 暴虐을 다하고잇든 公余林軍三千의 徹底的掃蕩을 決意한 我深田、伊藤、長澤、中村、得江의 各部隊는十四日夜半 南芳林(井陘南方十五키로) 南同治(石家莊南方十五키로) 固村(石門西南方)、山行(元氏西南方十八키로)線에 一齊히 攻擊을開始하여 살을여이는 寒風을무릅쓰고 包圍圈을縮少、十五日早曉에는 東蔡城 附近의 敵本據附近에 追迫하여 一齊히敵腹背를 衝하엿다 敵은 河北民軍遊擊隊의 所屬으로서 天嶮을利用하여 陣地를 構築하고 附近一帶를 地盤으로한것인데 共產第八路軍의進出以來 兩者의軋轢은 每日激化되여가는곳마다 兩軍의衝突을 惹起하고잇든中 我軍의攻擊을바더 周章狼狽 四分五裂狀態로 谷間에逃亡하여 山路를타고 右往左往 西或은南에潰走하엿다 陸의荒鷲杉本部隊는 때마침 晴天으로 常空이 덥혀잇섯슴에 不拘하고 低空飛行을敢行하여 潰走하는 敵을여게 저게서捕捉、早曉부터 夕刻까지 各機間斷업시 巨彈을퍼부엇다 그리고 西方으로潰走하는敵을 側魚鎭(井陘南方三十키로)에 向하여 追擊하고 또地上部隊는

京漢線西大別山系서 壯烈한大殲滅戰展開

【上海十六日發同盟】冬期攻勢에 慘敗를보고 內外抗戰陣營이 凋落되고잇는 蔣介石은 頹勢挽回의 策으로서 最近京漢線方面 西大別山系峻險地帶에 孫殿을指揮官으로하여 百廿二、百廿四、百四十二、各師를基幹으로하는 大軍을集中하여 京漢線出擊을企圖、蠢動을開始하엿스므로 我方은一擧에 이敵을殲滅코저 十五日早曉 寒風을무릅쓰고 全軍一齊히 總攻擊의火蓋를열엇다 信陽、隨縣과連絡하는 八十五키로의西大別山岳地帶로 前進하면 일직 夏東會戰에서 蔣介石의秘寶 湯恩伯軍을 擊滅한곳인데 我軍은 이快捷의 地에서다시 敵殲滅戰을 展開하엿스므로 激烈한寒風을무릅쓰고行進하는 我急追擊의아페서 敵은 벌써 動搖의氣色이 濃厚하엿다 即我川俣、惡甲、富田、十井各部隊는 十五日早曉〇〇의作戰基點을進發하여 隨縣北方에서 南流하는 徐家河를 壯烈한 敵前渡河를 敢行、一擧에 敵前線據點인 萬家店(隨縣東北方二十五키로) 東方의 敵陣地에 肉薄하여 川俣以下 各部隊와呼應蹶起한 山口 淨山 山中 細井各部隊는 隨縣北方에 聳立하는標高九五〇米 寒風이서리는 馬鞍山의 險路를 踏破하고 다시林家河의 溜氷을타고 渡河하여 十五日夕刻 벌써 南家店의 南方에 躍進하엿다 그리고 實殿以下의 新銳部隊는 前記 各部隊의中間地區의 奇襲行動을開始後 겨우一晝夜十六日早曉에는徐家河、林家河、萬家店을連結하는包圍態勢를完成하엿다 我軍은 차층萬家店西周의 天嶮에據한 敵에對하여 猛然한總攻擊에 轉하여 步一步敵을 壓頭하고잇스나 十六日早曉我空中偵察의 結果에依하면 彼我의 交戰은 지금 最高潮에 達하고잇는데 敵은 벌써 動搖의 [illegible] 部隊는 西方으로부터 前進中의 保江部隊와協力하여 一擧에殲滅을期하고잇다

杭州、嘉興、湖州方面 敵總退却開始

【杭州十六日發同盟】昨十五日深更을 期하여 杭州 嘉興 湖州等 三方面으로부터 一齊히 進軍을 開始한 我精銳部隊는 때마침 四方은 寒雨를 무릅쓰고 猛進中이며 諸情報를 綜合하여 보면 同方面의 敵은 莊村殿殘置 主力은 隆頭鎭方面으로 後退하고 敵의動靜은 漸次 消極化하고 잇는것으로보여 臨히 軍士路에 潛伏出沒하고잇다 그리고 一部는 附近에 敗設한 地雷에 觸하여 多數의死體와 手榴彈等을 遺棄하고 退却하엿다고한다

十七日閣議

【東京電話同盟】十七日閣議는午前十時四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米內首相으로부터 議會開會期日의 問題에 關하여 貴衆兩院에對하여 三十日까지休會 延期要希望하고십다고 述한다음各

一月三十日까지 議會休會를要請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六、七兩日 閣議에서 議會對策을中心으로 協議한結果 議會再開期日에對하여는 議會가 豫定대로 二十二日再開를 볼時는 政府로서는 아직이에臨할 諸準備가 整備되지못하엿스므로 二十二日 議會에서는 議會休會의件만을 議題로하여 一月三十日까지 休會하도록 諸般手續을 取하기바란다고 要請하기로 決定하고 十七日 石渡書記官長은

各派交涉會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은休會後 議會再開期日問題에關하여 十七日午後 議長官舍에 各派交涉會를열어 政府側의 希望에依하여 廿二日再開와同時에 院議로써 休會를決議하게되엇는데 貴族院에서도十八日各派交涉會를열고休會를決議하기로되엇다 大木貴族院書記官長에 對하여 이통을 要請하엿다

新政權支援方針

中外에闡明方法을協議

【東京電話同盟】新內閣은 十六日 米內首相의 第一聲에서 支那新中央政府의 成立에 對하여 全面的으로 支援할것을 闡明하고 [illegible] 十九日 [illegible] 閣議에서 [illegible] 이를 中外에 闡明할 方法을 協議하기로 되엇다 [illegible]

總理事務引繼

【東京電話同盟】米內首相은前總理와의 事務引繼는 十七日午前九時半 首相官邸에서 行하엿는데 米內首相과 阿部前首相은 모다 一介의 海軍大將 陸軍大將이 되어 人情味잇는 米內首相의 [illegible] 하엿다

新內閣과協力

新秩序建設에邁進

臨時政府王行政委員長談

【北京十六日發同盟】臨時政府王克敏行政委員長은 米內內閣의 成立에 對하여 다음가치談하엿다
日本의 新內閣이 成立됨에 [illegible] 東亞新秩序의 建設은 日本의 [illegible] 日支兩國의 共同使命이다 我政府는 日本新內閣과 서로協力하여써 그實效를 거두려는 바이다 東亞新秩序建設 이것은 吾人은 互相協力하여 이目的에 到達하려고期하는者이다 米內新內閣의成立에 當하여 나는臨時政府를代表하여 삼가 賀詞를 보내는同時에 前途의 順利를 祝願하는바이다

華興券發行高

【上海十六日發同盟】華興商業銀行發表에依하면 一月上半期中의 華興券流通最高는 五百三十餘萬圓 最低는 四百九十餘萬圓으로 그 需要는 依然 相當히 多額에 達하고잇는데 預金으로 振替한것도 相當히 만허다 十五日現在 流通高는 兌換券에잇서서 五百二十三萬五千圓으로 昨年末에 比하여 十七萬七千圓을 增加하엿스나 補助券은 一萬六千圓을 徵減하엿스므로 結局 合計에잇서서는 五百二十五萬二千圓으로 昨年末에 比하여 十七萬六千이란 僅少한增加를 보인데 不過하다

國共對立深刻化

甘肅省東部서武力衝突

【上海十六日發同盟】最近重慶方面으로부터 當地外人側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國共兩軍의 衝突은더욱 深刻激烈하여 最近에는 다음가튼 事實이 判明되엇다 即陝、甘、寧의 西北邊境地區에 蟠踞하여 勢力을 增大하고잇던 共產軍은 昨秋甘肅省東部方面의 五縣에 直한 地區를 占領하고 同地方의 赤化地區化를 꾀하고잇섯는데 重慶側은 同方面 邊境一帶는 하망이中央側의 管轄下에 잇서야한다는 意向으로 胡宗南軍七個師를 動員시켜 그討伐을 시켯는데 胡宗南은 中央軍의 精銳 第九十七師를 中心으로 飛行機까지 使用하여 大規模의 討伐을한 結果 共產軍은 前記地區로부터 敗退、省外로 放逐되어 陝西省延安을 中心으로 集結、防禦工作을 하고잇다 一方 同軍의 衝突에 唐恒한 兩黨首腦部는 再三折衝한結果 今年正月에 이르러 一時妥協成立까지는 보게되어잇섯스나 共產黨側은 今番中央軍의 攻擊을 말하되 이는西安事件直後에 成立한 省境 協定中에 있는 前記五縣을 邊境共產特別區에 編入한다는 約束을 破壞하는것이라하여 依然 國民黨側에 對한 激烈한 不滿反感을 가지고잇다 이에 對하여 中央側은 共產軍의 進出은 重大增殺을 爲한 地盤擴大를 꾀하는것이라고 보고잇는데 前記地區에 共產軍이 蟠踞하는것은 蘇聯과 接하여저 邊境赤化特別政府를 强化하는 結果가 된다는 點을 特히 重視하고 共產軍의 同地區에의 進出에 對하여 어디까지든지 武力으로써 拒絕하려는 意向을 가지고 잇기때문에 兩者間의 對立相剋은 더욱 深刻化하여가고잇다

滿洲서殘匪掃蕩

王長勝匪逐全滅

【吉林十七日發同盟】商井、名古屋兩部隊는 十四日 午後二時頃 일찌기 部下一千餘를 引率하고 吉林、通化、奉天三省을 시끄럽게한 匪首王長勝이 部下七、八十名과함께 討伐隊의 눈을避하여 敦化、樺甸兩縣境의 山寨에 潛伏한것을 發見하엿스므로 곳 이것을 殲滅하려고 兩部隊가서로 呼應하여 山寨地帶에 迫到하엿다 敵은 이것을 感知하고 猛烈히 輕機小銃의 亂射를 하여왓는데 我方은 이에屈치안코 勇敢히 猛烈攻勢에 나와던바敵은 唐慌하여 退却을 開始하엿다 我方은 이機會를 노치지안코 猛追擊을 加하여 드디어敵을殲滅하엿다 이戰鬪에서 匪首王長勝은 사로잡고匪는 全部重傷을입혓엇다 彼我의損害는 다음갓다
我方은損害업다 敵遺棄死十七 鹵獲品 銃旗、彈藥多數 小麥、粟等 雜穀을合하여 三十餘石 『무』 七十貫 馬鈴薯百貫、滿服五十着 『지까다비』 六十足 他日用品等이 山積하여 잇서 이鹵獲品으로보아 그들이 如何히有力한가를 알수잇다 그리고 武勳의商井、名古屋兩部隊는 匪賊하여 殘敵掃蕩中이다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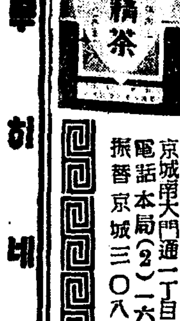
◀陣內利夫氏(新任總督府張家口出張所長) 十八日午後四時三十分京城驛發赴任豫定
◀井坂圭一良氏(總督府商工課長) 東京出張中 十八日朝歸任豫定
◀朴南圭氏(內鮮一體實踐社社長) 人事次十七日來社

八面鋒

◇米內首相의 發明은 『東亞新秩序建設邁進』、『노구나알고잇는것』。
◇『心和』를내걸고 國民의協力要望、時局克服의要諦。
◇事變處理、國際問題、國內問題를 鼎立의 重으로삼는 政治信念。
◇國內問題를 重視한點에 特色이잇기는하나 具體方策果如何。
◇十의生活을 六의生活로 最低限度에 滿足하겟스니 物의偏在、配給不圓滑은 업새주어야하고、첫째 供給確保가 急務。
◇精動은 實生活에 合致케하다니 果是適切。
◇統制經濟의 逆効果 愼重注意는 晩時之歎不無、써 統制의 貧困을 打開할일。
◇藤田新農相은 米穀生產配給에 國庫補償을 示唆。
◇通制對策에서 不足對策으로 轉해진것을 께다른모양。
◇政府의 熱誠과 責任으로 米穀對策의 根本을 삼켓다니 두고볼일。
◇自主外交邁進을 有田外相闡明、國交調整이 結實되길。

超滿員!
21日まで
20th CENTURY FOX
スエズ
只今好評上映中!
タイロン・パワー
ロレッタ・ヤング
アナベラ
主演
登場人員一萬餘名 馬匹五千餘頭
スエズの規模の雄大…… スエズの興趣…… スエズの今まで…… それは御覧になられた映畫の中で一番に膝をうち手に汗を握る
激鬪十五日間土俵の熱戰
春場所大相撲日報
大日本相撲協會 製作 全日本獨占封切
東寶映畫
東寶
若劇

모루히네
모루히네代用
醫學博士 朱鍾勳先生 實驗推奬
オネヒモ モヒナール 注射
最新强力·鎭痛·鎭靜·鎭咳·麻醉劑
發明完成
身分證明書不要の代用藥
包裝及價格
一〇〇 一、二〇
五〇 五、五〇
一〇〇 九、〇〇
製造元 京城府花園町 天光製藥所
販賣元 春信堂藥社 振替京城一二四番


體位向上
精力增進
植物性호르몬豊富含有
高麗人蔘精茶
맛조흔茶를 마시면서 몸을 건강히
定價 大(三〇回分)五圓 中(六〇回分)二圓 小(二〇回分)八十錢
合名會社 亞細亞貿易公司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三番地
電話本局(2)一六八六番
振替京城三〇八一一番

新製
美神丸
婦人科の病に
除去하는特効藥
無代奉仕!
나으라블리라
美神丸定價
三週間分 1.10
五週間分 1.80
十週間分 3.50
廿週間分 6.50
全國各藥店에有하오니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朝夕의食卓에

新入會員大募集
中學科講義
小學校第五·六學年 學科講義
京城府和泉町六 朝鮮中學會

弱体强化 体位向上
世界唯一의純비타민原基綜合劑
主成分
비타민A의原基카로친
마마노酸鐵카루슈무
補血强壯
비타모A液
發賣元 日本藥物研究所 京城出張所
京城府漢江通一五

銀器皿及佩物部新設
色調、彫刻、意匠
모다斬新한豪華版!
營業種目
◎銀器皿에一例
神仙爐、酒煎子床盤器、果物器、匙箸、特製銚子、光盃、正宗盃等
◎佩物에一例
民簪、頭簪、耳子、蓮峰尖、眞珠尖、萬尖、산부라지나製品、新다이야手環、腰帶장식、쥐 모、各種丹樞等
丁子屋 二階 綢緞賣場

夜學生募集
講習期間 自昭和十五年一月廿二日 至同 四月廿二日
講師 京城出張所外內地人一人
學科 滿三個月六個月
模範支那語講習會
申込締切 一月十五日迄
規則照會 和泉町六 國民會
後援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卸商聯盟會

輸移出、配給圓滑用으로 正租九十六萬餘石買上

買入事務는各道配給機關에서代行

今日、總督府에서發表

총독부에서는 지난번 총독부에서세운 소화십오년 미곡년도의 식량배급계획에 주각도에 미곡배급조합을 설치하고 도당국의 지회하에 미곡을 매입하여 수이출(輸移出)과 조선내배급의 원활을 도모하는 조선의 식량배급통제체에 의하여 이번에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와 각도미곡배급기관으로하여금 수이출과 조선내 수급조절에 사용할 미곡을 위선 다음과가치 매입하도록 하여가지고 미곡의 배급에 유감업도록 하기로결정되엇다 그리고 또 이다음에도 다시정세에 응하여 적당한 수요낭의 미곡을 매입할예정이라고 한다

一、매입수량

수이출에 충당할미곡 六十萬六千石

조선내수급조절에충당할미곡 三十六萬三千石

합계 九十六萬九千石

대개이상과가치 위선제일차로 미곡을 매상할터인데 이것은칠분도(七分搗)백미로한 수량으로서 미곡이 남은도에 분배하여매입하기로되엇다

二、매입기관

수이출에충당할미곡은 조선미곡시장 주식회사에서 취급하기로하되 그실제매수 사무는 각도미곡배급기관에서대행한다 그리고 또 조선내수급에충당할미곡은 각각분배된도의 미곡배급기관에서 매수한다

三、매수시기

오는이십이일경부터 매입을 개시하여 될수잇는데로 급속히한다

四、매입방법

벼를 그대로매입하여 총독으로부터 다시 지시가잇슬때까지 적당한장소에 보관한다

五、매입한벼의처치

매입한벼는 총독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것을 칠분도백미로 찌어가지고 수이출 또는 조선내수급상필요한도의 미곡배급기관에공급한다

六、매입자금

氷上하키-의覇者 全延專東京遠征

明十八日午後二時에發程

事變失業者手當 申請者가稀少

各町總代方面委員의意慢所致

옹색免할地方財政

今年부터分與制度創設

初年度에는九百餘萬圓分與

監視官을常置

浪費傾向嚴重監督

春川商街에 大火

志願兵勸誘行脚

故鄉各地에志願兵派遣演說會

一般青年에게趣旨徹底

春川高普生事件

最高一年半役言渡

慰問使派遣

國境警備從事員

痘患者、오늘도두명

乞人中에痘患者

本町署員이檢索中發見

桃花町에도 新患者發生

慾氣로나꾼 六千三百圓

버더나가는"海運朝鮮"!

仁川、天津線强化外 青島線上海까지延長

遞信局新年度命令航路廿線指定

日伊親善機 歸路에登程

芬蘭과싸움일어난후 蘇聯은物資不足이深刻

最近歸朝한某內地人談

端川에强盜

咸南利原郡下 水産工場猛燒

損害數十萬圓

"木材線路"移轉

當業者에겐打擊甚大

比島遠征

過燐酸製造 新方法發見

自殺未遂

今夜의라디오

八戶市의人氣沸騰

英人에게트氏 柔道二段昇段

運動界人事·集會

朝報案內

同業 募集 寫眞見習 求病院助手 求電話買入 帳簿書記採用

오케 코스모嘆息

パンタリン 注射劑 京城府黃金町 三龍製藥社

中風、半身不遂、動脈硬化에는 心臟病、內腫、痰腫에는 原因療法을하여病뿌리를업새야합니다

어린이가맛잇게먹을수잇는鐵과肝油劑

發育期의 榮養에

滋養 鐵肝油

一個月分(一五〇瓦) 一圓八〇錢

德用瓶(五〇〇瓦) 四圓八〇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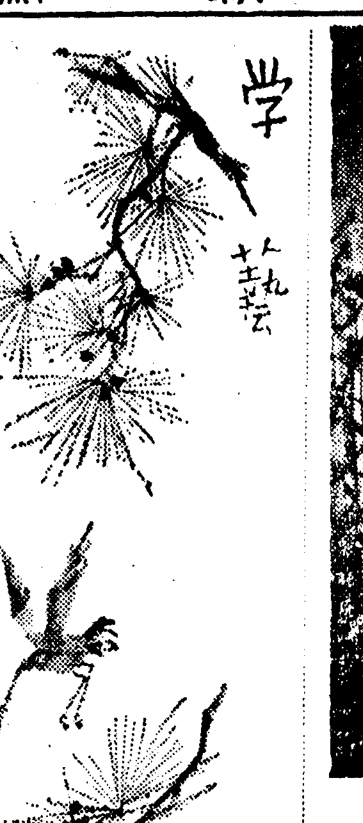
無代進呈

本邦唯一의크림비누 資生堂石鹸

汚穢를씨서내고도크림의作用이잇다

東京銀座 株式會社 資生堂

新選文學全集 朝鮮文學讀本大發賣中



와그너와 超現實主義

『살바도르·달리』의 奇拔한 超現實 舞臺裝上 新方面에 대해서는 開拓해지만 이러한 超『모던』的藝術을 或은 가르쳐 새로운 突發事件이라하지만 新奇은 그 背景에는 키―다린리 典의 血脈이 넘실거리는 이것은 大部分이다. 『조이쓰』와 『쉬르리아즈』가 『호―머―』에 『模倣』을 가지고잇다함은 이미定論이거니와우의 寫實에서보는 『달리』의 이번 『바카날르』의 形態도 『와그너』의 名作한 『탄호이저』 속의 『베스』는 『베르그』의 理論와 超現實的本質이라는것이 評家의 見解다。

一等當選論文 新世代의精神 ②

孤立性과 無原理

鄭義浩

이原理의 顯現과 孤立的作家의 相的關係을 가지고잇는 것으로 그것은 現在 우리文壇이 如實히 顯現되어잇다。

評論의 素朴가 云謂된다든가 또 一連의作品을 貫通하는 『프리뷰앨리즘』의 傾向이 라든가는 그 具體的顯現인것이나 우리는 좀더 重要한 現象으로써 文學人自體의 個性의 喪失이란것을 看過할수업다. 이러한現象은 所謂新人에게 더욱 顯著한것이나 이것은 곳前記의 新世代의文學人으로써의 性格의 路由이 아니면 아니된다. 여기에

個性의 喪失이라 함은 若干 語弊잇슴을 自覺하면서 文學人의 實踐活動(評論, 作品其他會合등)에잇서서, 各自撰擇의領域 또는 現象을 解析하야 甲의 作品, 乙의 二것等에 잇서서 自己로하여금 他와더부로 別個化될수잇는 生存的新鮮作과 特異的獨創性을 發見할수 업는 技術的現末主義의 周邊을 模倣하는 現象을 意味코저 한다.

原理가 確立되고 文學領域에 잇서서 主流가 形成되엇슬때비로소 評論은 指導性을 發揮할수잇고 孤立한 文學人이 確立된 原理에 具體的으로 統一될때 비로소 各其의 참다운 意味의 個性을 發揮하야 새 獨自의 領域을 가질수잇는것이다. 孤立的 分散的 位置는 보다 自由스러운 領域에서 各自의 길을 開拓해나갈수잇슬듯이 보이고 또 實際는 原理下에 自身을 從屬시킴는 으히려 自己撰擇의 偏頗과 係統에 制約될는지도 生覺키우는것이나 이는 한낫 皮相的 形式論理에 지나지 안코 生한 **現實**의論理는그와正反함을 무엇보다도 現實的事態가 論證해주는바다.

우리는過去 한때에잇서서 文學의黨派性이라것이 어떤原理的 意識미에서 이論議되엇던것을 記憶하고잇다. 그때의主張은 時代的傾向에 影響되바잇는 政論主義的過誤와아울러 當時의具體的 現實과 抽象的觀念과의 懸隔이란 致命的事實에 基因하여 뜻이 어긋나는 이른바 圖式主義 定型主義的結果햇다.

現世代의文學人은 이와는判異한意味의 새로운 圖式主義에빠저잇다고본다 果然 正論을 일흔 見解일까! 極히 例外的인 少數의것을 除外하고 生覺해본다면 評論은 主觀的 印象的獨自的 입상고 作品은 大同小異의人物이 作者의 손재간미테서 [illegible] 우리는본다.

近者에와서 小說의 主人公은 探求하고 性格的人間을 論하게 되엇다할른 決코無理가아니다. 前者의 **圖式**主義에잇서서는 登山者가目的의 山頂만 치어다보기에 急急하여 발미테 노혀잇는 하나의 돌 한폭이의 花草에게는 注意도하지 안엇다면 後者의그것에 잇서서는바루 눈아페잇는 풀이나꼬체 細密的 注意를 일삼으나 어언간 征服코저하든 山頂을 忘却한것에 比할수잇는것이아닐까 『이山을보라!』하는 『까이드』를發見하는곳에 評論은 그權威와더부러 指導性을 回復할수잇슬게고 作品은個個의 花草木石의美와 더부러 全體的인 山岳美를 늣길수잇는것이라生覺된다

人間과 및 人間을 圍繞하고잇는自然과 社會의가튼 實在를 表現함에잇서서 文學은 情感의世界를媒介로하는곳에 이른바 『科學』과 本質的으로 區別되는것임으로 文學에잇서서 形象手段 乃至技巧는 그의本質的要素이루는것으로 가장重要되어야 하므로 어떤作家의 獨創的 告白에도잇는바와가치 勿論 文學人에게잇서서 健實한世界觀 또는 **原理**의 把握은 그것이 곳 『文學』일수는업다. 그러나 所謂新人들의 一般的傾向과가치 아무런 原理의 統制도업시 그저市井의 世態나 또는 『新奇』한人物을 觀察的으로 또는 槪念的으로 模寫하는것에 文學의純粹性이 잇는것가치 錯覺하는現象은 嚴正히 批判밧지안으면안된다. 이點에對해서의 李源朝氏의 다음의말이 前記 일必然性가잇슬것이다. 即氏는 『그가 功利의藝術을 唾하것은 不快히生覺하나. 그러나 그는思想에 功利的인것박게 認識하지 못하고 마치내 그것을 참되히 認識하기에 이르지못한것은 許容할수업는것이다』라고한 『티오필, 고리에』에 對한 『앙드레·지드』의말을引用한後, 우리文壇의某氏의 藝術의 純粹性理論을 攻하여曰 『(某)氏가藝術의純粹性을 主張한것은 기쁜일이다, 그러나 藝術이 思想이나 主觀으로부터 絶緣을해야 純粹한것이라고 생각는것은 참을수업는일이다』라고 하엿다 (文章十二月號)

어떤논이 말한 『三十代作家의不幸』과 **新人**作家의 『幸福』이란 말노 어느意味로보면 『三十代作家의 幸福과 新人作家의不幸』이라고도 理解할수잇슬것이다. 新人作家에게는 새世代로써의 精神的樂園이 缺乏해잇슬뿐아니라 그전世代가 體驗해온 時代에의 熱情과 努力가 [illegible] 人生으로써의 기피와 무게에 잇서서 未成年이다 所謂 그들의 [illegible]이란 곳 『新人의不幸』의代名詞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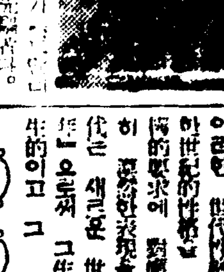
이러한原理의喪失과 孤立이 주는 [illegible] 文學 여기서는 本稿의 性質上 文學界의 現象만을 指摘햇슬따름이다 압서도 잠간 言及햇던바와가치 이러한 世代性格의 形態는 前記한世紀的 性格이 規定하는 根本條件的要求에 對應하는것으로써極히 [illegible] 한다면現代는 새로운 世代가 『人間의再生』으로써 그生活에 잇서서 野生的이고 그 **精神**에 잇서서 [illegible] 할수잇도록 保障해 주기에는 너무나 벅찬 時代인同時에 하면 新世代自體로써는 直前의世代가 世紀的波紋미테 [illegible] 새로운 [illegible]에 自身을 適應시키지도못하는代身 反撥하지도못하고 [illegible] 것이 『이―지―·고―잉』 하길이엇스며 더구나 스스로 [illegible] 本來的인것 合理的인것으로 [illegible] 『宿命』을 『運命』化하곳에 世代的不幸이잇다고 할수잇슬것갓다.

世界의 귀

『파가니니』百年祭

【音樂世界】伊太利가 나흔世界的 名提琴家니 『파가니니』는 一七八二年 『제노아』에서 誕生한 『바이올린』과 『기타―』의名手로서 一八四〇年 『니―스』에서 死去할때까지 만흔作曲을남겨노핫슬뿐아니라 그의 作曲에 잇서서도 奇蹟가 만타。 그리고 그의 演奏는 內容하고 優雅하기로 評判이 놉흐며 [illegible]

이에 『파가니니』 百年祭計劃委員會에서는 記念事業으로서 一九四二年 『제노아』에서 國際 『바이올린』 컨테스트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는바 今番 『컨테스트』의 應募者는 一九四一年十二月末日까지 『제노아』의 『파가니니』 百年祭計劃委員會로 申請하면 應募하기로 되엇다。



(사진은 『파가니니』氏)

讀史餘錄 朝鮮

武士小史 (一)

安自山

우리가 博物館을 둘러볼때에 끈허진 石刀 붉어진 鐵劍이 눈에 뜨일적에는 尋常한 感慨가 떠오른다 이는우리 祖先이 몸을 鋒刀에 부치고 腥風血雨에 來往하던痕跡이다 하고 그윽히 푸른안개가 兩眉間에 비칠것이다. 가끔 新聞記事를 읽다가 農夫들이 沙草春耕에 折戟鏽矛를 어덧다는말이 잇스면 이는古代武士가 患難에 목숨을바친 자취로다 하고 생각하기도한다.

近世朝鮮人의 態度를 보면 偃武修文에 기우러저 一時的으로라도 柔弱에빠졋다하나 古代의 根本人品은 차라리 堂堂한 武士엿다.

나는 이것을 以上에 보인遺物로써 實感도 하거니와 前史上에 나타난 史實에비추어 더욱 그일을밋는다

上古武士

朝鮮上古史를보면 大概 武士精神을 發揮한 史實은 예닐곱이도 이루 헤일수업다.

古史記에 이러한것이잇다.

性勇勇 便持矛步戰
衣冠帶劍 食飮 使二文虎
恒恭坐而不相犯 相譽而不相毁
見人有急 投死救之

이러한文學은 우리民族의 武士精神을 속이지안코 써노흔것이다. 要컨대 三國時代에는 다른文化가 업섯다 오직 武藝와 [illegible] 外敵과 싸우든 生活밧이든것이다.

그럼므로 朝鮮人의 固有性格은 武士道的氣風이다. 朝鮮武士는 저 東洋敎의 使命感으로부터 생긴 西洋武士와는 아주다르다. 朝鮮武士는 오로지 同族을 서로부터라가며 自衛를 爲하는 自然的天性에서 由來된것이다 도한 粗暴하야 勇猛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三大德目이 잇서서 忠誠 武勇 禮讓等 三條의 本分이잇서왓다. 말하면 以上에 보인 史記와가치 見人有急 投死救之라 함은 忠義上 不相犯이라 不相毀라 함은 禮讓이오 武勇이라 함은 武勇이니 이三德이 即古朝鮮人의 武士道의 源泉이다.

自來로 『朝鮮은 禮義之邦』이라하여 온것은 곳 이三德으로서의 文武兼全한性格을 象徵한것이다.

三國武士

三國史記의 列傳人名은 모두 八十七人인데 그中에서 六十人은 全部武士다. 그外에本紀에 나오는武士를 合하면 前後百二十人으로서 總人物數의 九十『퍼―센트』는 全部武士다. 이時代는 文化發展을 따라 武士의 活動舞臺가 넓어짐도 自然의 勢이니와 這間에는 全國民이 武士가되지아니할수업는 事情이 잇섯다.

(一)中原에 發興하는 隋唐이 邊境을 자조侵犯함에 그들은 이를驅逐하는데 國民總動員의體制를 取해든것이다.

(二)그때는 外來思想이 潮水가치 밀어든지라 그들佛仙의 外來思想이 輸入되므로부터 武士道도 그影響으로 더욱 新興勤을 바다가지고 더욱 發展하여 나가서 저有名한 花郞武士라는 大團體까지 생겻낫다. 그團體의 主義가 [illegible]이 最近에 퍼저나가는동안에 良將勇卒이 또한 一時에勃興하엿다

新春隨筆 憫酒 (下)

李泰俊

술을먹지마시요 나를 애끼는이들의 絶切한 부탁일러라 술을배우시오 이도또한 조흔친구들의 懇切한 부탁일러라

술을구지 먹을것도 아니요 구지안먹을것도이닙니다 이도또한 밋버운친구들의 부탁일러랑.

紛紛한 異說中에 彷徨타가 으엽스되 天意所定을 別識라고니지못한것마는 過麥田

[illegible] 滴酒에 [illegible] 되니 친구들의 술맛을 재처논것은 第二, 어찌酒料의冷笑함을 免하리오.

文友들이 [illegible] 하는 春山, 牛山, 月汝, 지용, 人岬, 秉岩이 [illegible] 이라 나의孤立孤影은 天外에 [illegible] 하는석이 一夕이아니러랑.

○

剩餘를 따를 길이 업되

나는 酒德을 구지貶하는者는 아니로서 [illegible] 하여 宇宙 新鮮케하듯 酒德하야 精神을 陶然케함에 이르런 술의 飮料以上인바를 어찌 否定 아리오. 다못 [illegible] 하는 所謂酒鬼를 [illegible] 이랑.

[illegible] 香料의 [illegible] 靈動하는 친구는 [illegible] 을 모르는者요 [illegible] 이 먹지안코 [illegible] 하려는者는 [illegible] 侵入하는 [illegible] 이요 多辯하여 相對者를 [illegible] 하는것도 술의紳士는아닐러랑. 그러라고 [illegible] 으로 못술만 되사리고 안잣는것도 酒德은 아닐뭇시퍼랑.

『술을 [illegible] 하며 어찌 文 [illegible]

살려하는 [illegible] 나는가끔이런質問에 [illegible] 하는바 [illegible] 나 [illegible] 士나 『오―마―카얌』인 술이 아니엿던들 그들의 詩篇는 永遠히 살든지 못하고 말엇스렷다. 詩歌뿐 아니라 散文에 잇서서도 過去의文豪들은 [illegible] 하는 [illegible] 일것이엇다.

現代文學이 近代化함은 나가른 [illegible] 이 [illegible] 하얏덜마나 多幸한일인고

○

酒戶弱하나 조흔 친구가 집에오면 드라고시픈것은내 [illegible] 보다는 한잔술이요 몸이아플때 [illegible] 생각 나듯시 마음이 고달플때 생각나는것은 그래도 술이라 이만만해도 酒量은 아니붓시괴라

[illegible]

訂正의 綴字法改革

◎諾威에 再改革이다 서는지난 年末까지 各學校를 通해서 綴字法의 大改革을 行햇다。

◎맨처음 改革은 一九〇七年에 잇섯다 이當時에는 諾威綴字法과 다른 丁抹綴字法이 잇섯다。諾威는 이두書體의 綴字를 [illegible]

◎두번째 改革은 一九一七年에 잇섯다 이때는 매우 調和된것이엇서 都市에서쓰는말과 農民이말하는 (下層)의말의 調和를 조화하는것이엇다。

◎그러나 近者에와서 이나라 國民運動의 中心은 農民이다。그래서 이번改革에 잇서서 一九一七年의 그것보다 한거름더나아가서 農民의 國語로 完全히 가까웁게 하려는 徹底한 綴字一致가 그 眼目이라한다

◎農民이쓰는 諾威語는 最近까지도 文語로 쓰이지 안어서 技術上의 術語와 商用語가 업섯다。

一九〇五年에 諾威가 瑞典과分離한후 세번 [illegible]

紫玉含露 靑岡 金永基 (上)

墨竹蘭菊 李應魯 (下)

本社後援 文人書畫展에서

新刊紹介

▲ 演劇評論 一月號 發行所 大連市伊勢町七八 演劇評論社 定價五十錢 送料二錢

▲ 詩學 第五輯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六七 詩學社 振替京城二五〇九五番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 新時代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朝鮮新時代社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 朝鮮唱劇史 鄭魯湜著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三十錢 送料二十錢

▲ 事變前後 (長篇小說)尹白南著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八 永昌書館 振替京城六一三二番 定價一圓

二等當選短篇小說 洪水 (六)

金萬益 作
洪祐伯 畵

이번에는 동리서 뜬다!

『할것이업서 남의집 게집을 건드려!』

아들은 대번에 훌이 죽는다 외면을 하고 매를 피할 생각도 안는다.

『이거 미친수!』

부엌에서 뛰여나온 안해는 남편의 팔에 매달린다

『어여! 뇌두라니깐!』

지영호는 뿌리치려 하고 안해는 작심을 한다.

『미친수 미처서! 왜 이래슈』

그래도 안해는 방맹이를 때스려고 한다. 방맹이채 안해를 밀친 지영호는 주먹으로 아들의 뺨을 지른다. 별로 거더찬다.

『너나가 죽어라 죽어! 너가튼 놈은 자식이 아니다 원수다 원수야!』

얼마처도 반응이 업다 주먹만 아프다 전신은 더욱 와들와들 떨린다제풀에지친 지영호는 마루끄테 펄석 주저안는다 담배를 입에다 물렷다 말고 갑짜기 마루를 땅땅 치며 몸부림을 친다 우롱이 컥컥 매킨낭 도이것갓다.

『죽든지살든지면 고만이다。 죽은셈단 칠테야!』

울타리넘어 허공에다대고 소리를치도록 그의 분은 좀처럼 풀리지를 안는다.

강물은 전대로 맑게 개이고 폭양은 아무일이 업서던듯시내리쪼인다. 한낫의 미려지근해진 강물에는 선유객이 차츰늘고 벌거숭이 수영객들은 가에서 물을 즐기게 되엇다. 수양버들 늘은 느른하게 매디의 힘을 일헛스나 강변의풍경은 오히려 풍성하다.

사공들로 줄다간 지영호는 드버리에 바빠다 저녁까지도 경히를 시켜 들어다 먹고 할이빼끈하다. 수머니에는 지전 장수가 늘어가고 잇다 그러나그의 마음은 집을 한번 나간채 소식이 업는 아들을 생각하고 향상 가슴이 묵룸 하다.

안해는 뒤로 아들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눈치다 잇슴직한곳으로 쪼차가고 경히를 풀어놋는 모양이다 지영호 그도 안해에게 지지 안케 알어볼 만

『네놈때문에 다른식구들 까지 못산다 무슨 낯으로 살라말야……』 얼굴에 독질을 해추어두 유만보욕이지 남의 게집을 건드리다니 웬말이야!』

영문을 모르든 그의 안해도 눈이 둥그래진다. 땅으로 뛰어들어가 술은 며누리의 어깨도 흔들린다. 아들만 목석가치 꿈쩍도 안는다.

『이대론 못산다 나가라 나가……독하면 죽겟네지 어서 죽든지 나가든지 해!』

아들 정용이는 고개를 휩처들고 일어섯다. 오만상으로찌프렷다 잠시 아버지를 무섭게노리고 섯든 그는 허리춤을 고처매고 박그로 나간다

『나갈려거든 영영 나가! 다시는 벼누앞에 보이지말어라!』

마지막 다짐을 하듯시 아들의 등에다싸어 던진다 땅에서는 며누리가 흐느낀다 지영호의 입에서도 한숨이 나온다

『집안꼴은 될대로 되엇다』

노롱으로도 신세를 망치고도게다가 한을 더 맥 게집도 하고만흔 총에 한동리 게집을건드린단 말이야 정녕수가 잇겟어찌 될것인가 먹지 안어 큰 손홍이 나고야 말것이다.

업서지려거든 멀리 멀리 떠주기나 햇스면 조켓다 언제는 제기 버릇 살롬보린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일년동안은 생각단 해도 지긋지긋하다 일뿌히도 식구들을 볶갓다 제가 나간다고 누하나 거들떠보아주 [illegible] 다 번번히 며누리의 울음보다도 아해의 설희가 더해간다.

『어서술 차저보자. 가만이말잇지말고.』

『술데운은소리 말어―』

『그럼 어떠케할라우』

『내버려둬 저아쉬운 어련이들어올라구』

누구보다도 썩에는 마음을억제하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식구들을나무래는그다

아들과 게집과의 정이 얼마나 두터운지는 모르겟다 게집은 아직 동리를 뜨지안엇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거취를 캐어를 용기까지는 아니다 흔자몰을 갈수잇 만이 다대이고 또 그러안 동안만 장터수를 만나도 죄스런 마음이 덜 하다. 오히려 잘 된 양도 싶다

그러나 또 다시 집안을 생각할때 고독이 가루 걸린다 나가란 말을 그렇게드렷다 하드라도 너무나 애비의 진심을 몰라준다. 도망을 하지 안코도 일은 처리 할수가 잇슬것이고 구지 도망을 해야 할것은 무엇이냐 용렬한 자식이다. 놈은 애비만을 밋고 다라나다니 원통하기도 하다. 애비를 부려먹는다고만 해서가 아니다 마음이라도 위로를 해주어야할것이 아니냐 못쓸 버릇한 녀석이면 벌어드리지를 안어도 조타 그것만을 다행으로 갑지덕지 마저 풀이겟다

三卷 火賊篇(上)

林巨正

漸入佳境의 爆笑戰慄痛快의 三重奏!

洪命憙先生著

四六版 洋裝 布製 一冊 定價 一圓五拾錢 送料(二十六錢)
一八册 一冊 貳圓 送料並

全讀書界를뒤흔드는大颱風!
凱旋將軍가든 林巨正의 大人氣

林巨正은 世界的大長篇일뿐아니라 그歷史的 事實의 正確과 津津한內容은 實로 東西古今에 그 類例를볼수업는 大著述이다。質로나量으로나 世界的名作임은 다시말할것도업고 이러한 巨大한長篇이 그러케 자미잇고 痛快하고辛辣한것도 世界에 그類例가업다。이미 一卷二卷이 白熱的歡迎을밧고 다시 第三卷이 出來하여 全讀書界의 센세이슌을일으키고잇다。그歷史的事實의獵奇的인것이나 民俗材料의純粹한것이나 語彙의豊富한것이나 文章의 流麗한것이나 그偉大한點이 朝鮮人과함께 그生命을같이할것이다。

第一卷義兄弟篇(上)發賣中 ― 第五卷火賊篇(下)近刊
第二卷義兄弟篇(下)同 ― 第六卷鳳丹篇〃
第三卷火賊篇(上)同 ― 第七卷갓바치篇〃
第四卷火賊篇(中)近刊 ― 第八卷兩班篇〃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社會各層의讚辭

現代時의生活鳥瞰圖 歷史家 李丙燾

當初 洪命憙氏의 巨作『林巨正傳』이 朝鮮日報紙上에 發表되기 始作하야 上梓, 벌서 第三卷이 나오게된것은 朝鮮의 一大紀念일것이다。本書가 現代小說로서 얼마만치의 成功을 거두엇는지 門外漢인나로서는 敢히말할수업는일이나 어떤 民氏는 新舊過渡期의 文人으로 古今에걸친 該博한 知識을 가지고, 林巨正이란 明宗時의 怪漢의 事實을中心으로하여 當時朝鮮人의 政治, 階級, 民俗, 思想, 感情, 其他 모든生活의 裏面을 구석구석이 描寫한氏의 才學을 기우린 不朽의大作인 것으로 나는 이書를 단지 一個文藝의 作品으로만 보지아니하고 그以上 무엇을 우리에게 示唆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新版水滸誌 詩人 李秉岐

도적질을하는 이야기라하면 水滸誌갓흔 巨作이 다시업으리라 한三百餘年전 許筠의 洪吉童傳이 지엇스나 그는너무 簡單하엿고 이近來 新作家들이 續出하긴하엿으나 또 하이러한作品은 업는바 『林巨正』은 처음으로 다시엇습니다 이러한材料를 가지고 이러한作品을 지으려면 水滸誌보다 이러한作品을 귀이여기고 親하지안을수업습니다

鄭魯湜著

朝鮮唱劇史

四六版五色度洋裝大美本
定價一冊 一圓三十錢
書留送料 二十四錢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復活하는 朝鮮古樂의 大氣焰!!

朝鮮唱劇調의 歷史的大檢討!!
百花絢爛의 藝術家大群像!

音樂과 演劇은 그나라民族의 가장充實한 感情의反映이오 또는 그社會의 가장完全한 生活의 表現이다 朝鮮音樂의 主流를일운 唱劇調와 이에딸으는 數만흔 藝術家群像을 가장銳利한 筆致로써 記錄한것이 이冊이다 唱劇調를史的으로 檢討하고研究하야 여기體系를 세운후 이唱劇調藝術家들의 生活과 그들의 長技等을 詳細히記錄하엿스니 이야말로 朝鮮古樂의 歷史的大復興일뿐아니라 只今곳 荊山에무친 璞玉을캐여낸셈이다。著者鄭魯湜氏는 斯界專門者는 아니나斯道에 興味를가지고數年間 研究하야 이冊을完成한것은 매우즐거운일이다。

目次內容

緒言
觀劇詩 申紫霞
觀劇詩 張玉山之詩
觀劇絶句 [illegible]
歌左 [illegible]
[illegible]
唱劇界의 分析
唱劇調의 組織과 장단
唱劇調의 由來와 變遷
唱劇의古曲調
대가 다
[illegible]
唱劇作家의 著作考證
唱劇調와 [illegible]의 關係

[illegible]

事變을契機로한 朝鮮工業躍進相 ③

金光淳

三、動力確保에의努力

朝鮮工業發展의 基盤의하나로서 豐富低廉한動力資源 其中에도 水力資源이잇다는것은 이미言及한바이다. 朝鮮에잇서서는 朝鮮電力會社와가치 專혀 火力發電에依하고잇는것이 업지는안흐나 由來 朝鮮에는 石油資源이 全無이고 石炭資源이 그다지豐富하지못한關係로 火力發電은 發展을보지못하고 水力發電에 依存하고잇는터이다 [illegible]

[illegible] 日本窒素系統의 朝鮮工業의 [illegible] 長津江 赴戰江 虛川江 [illegible] 水力發電 [illegible]

農村三團體調整

機構改善要綱發表

七十萬圓豫算을大藏省査定

道單位의購販聯强化

金組、農會、產組의三團體事業의調整은 七十萬圓의豫算이 大藏省의 査定을마치엇스므로 農林局에서는 事業調整의要綱을決定하고 發表하엿는데 根本方針으로서는 重點을道單位인 購販聯[illegible] 總督府에서도 多年研究를 거듭하여온것이다.

農會 에잇서서는 農業의 指導奬勵의 徹底를 期키爲하여 [illegible]

金融組合 은 庶民金融機關으로서 [illegible]

產業組合 은 大正十五年制度創設當時에잇서서는 織物、朝鮮紙其他 特產[illegible]

總督府發表

從來 農產物又는農業用品의共同販賣購買事業은 主로農會、產業組合及金融組合에依하여 行하여오든바 [illegible]

土

改設計監督機關

水利組合案이有力

[illegible]

日曹系三鑛業合倂

日曹系 [illegible]

小運送問題落着

丸計를朝運에讓渡

各都市別로合同會社를創立中

二月六日丸計總會開催

既報와가티 小運送計算機關單一化、小運送集約合同問題에對하여 其間鮮日丸計鮮滿運送計算會社[illegible]

人絹、스파

適正價格再申請

人絹及「스파」織物 協定價格의 [illegible]

金以外의地下資源

探鑛獎勵補助金

三十七萬八千圓增額

[illegible]

總督府買上米穀

諸損失을補償

米穀調節에効果期待

總督府農林局에서는 第一四九十六萬九千石의 米穀買上을 決定하고 發表하엿는데 內地滿洲北支輸移出及 朝鮮內消費의 進捗하게 總督하여 買上을斷行하고 一月中旬까지엔 二百五十萬石의 買上을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今回의買上을 道사이에當하고 朝鮮內調節米는 道、輸移出米는 米穀會社에서 各各管理하여 總督府의指令에依하여서 今後 移動하기로된바 右各道及

米穀市場會社管理分에對한 保管、運賃差額 又는 價落에依한損失은 모두 總督府에서 補償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 各道及米穀市場會社가 表面에잇스나 實質은 總督府가 直接買上하는것으로 이에依하여 總督府의 米穀調節에對한 實力이强大하게되어 今後의米穀需給不安을 除去에多大한 効果를내일것으로期待된다

買上不成績이면

强制買上斷行

京城穀物商組合

臨時總會開催

各道에서는 政務總監通牒에 基하여 當日中에 米穀의一齊買上을 斷行키로決定하엿는데 各道에서는 開催할것이다 [illegible]

鮮銀膨脹

【三億八千八百萬圓】

忠南漁聯設立認可

[illegible]

一年만에처음으로

京城都賣價反落

鮮銀調査・十二月九厘六毛低

商品類別指數

比再昨年同月二割二分高

比事變前五割七厘八毛高

三年間의指數

京城勞賃微騰

商場十談

[illegible]

現物不勢

[illegible]

延取 閑散

賣物殆無

株式 續落後에 下止

今日外市勢 十七日

藏相에失望?

後場反高

[illegible]

海外經濟 十六日

對外爲替

今日現株市勢

銀行券 十六日

金利手形交換

許可府督總
金 買 銀
社會買吉銀金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黃金町入口)
交引・金料無 灰吹底金化精

三國志 (71)

韓龍雲譯 熊超畫

李傕郭汜의亂 (七)

[illegible]